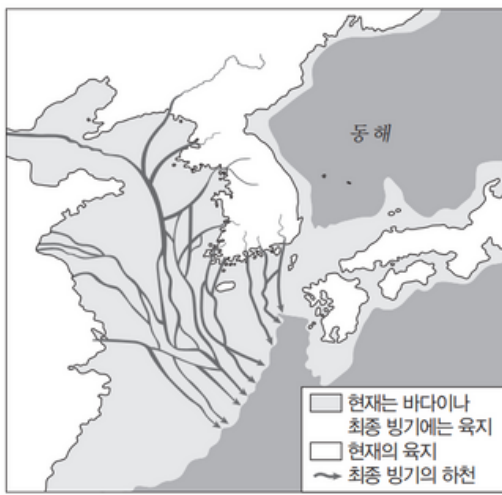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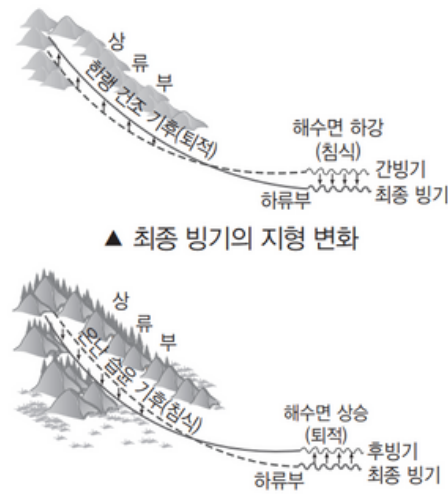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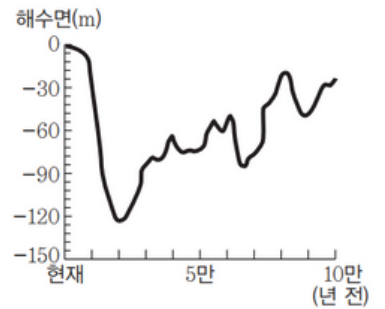




▲ 빙기와 현재의 해안선과 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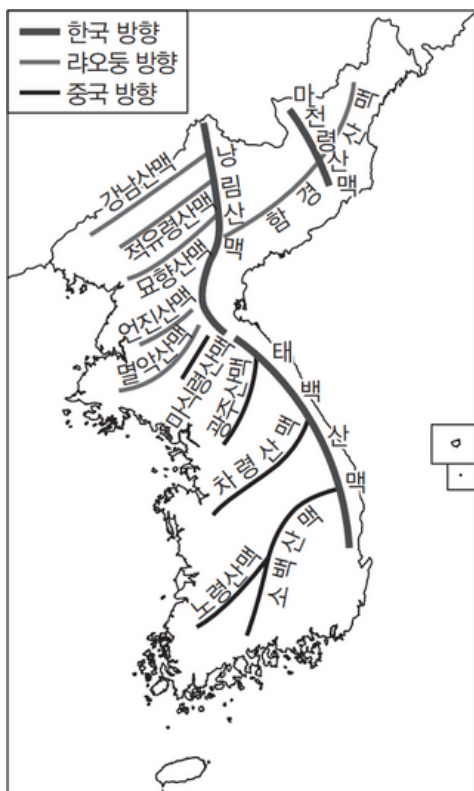
▲ 후빙기의 지형 변화



▶ 참고

- 신생대 제4기 화산 폭발과 지각 변동, 기후 변동 순환 등의 이유로 빙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 빙기에는 강수량이 줄고 강물이 빙결되어 바다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줄어 해수면이 하강(후퇴)하게 되었다. 이에 수심이 얕은 서·남해안이 육지로 드러나 중국과 일본을 육로로 오갈 수 있었다. 수심이 깊은 동해에서는 연안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빙기에도 계속 바다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는 빙기에도 육로로 오갈 수 없었다.
- 빙기의 하천 상류에서는 식생이 감소하게 되었고 토양의 동결과 융해가 심화되어서 풍화 산물의 공급(산사태)이 증가하였다. 빙기의 하천 하류에서는 유량이 감소하여 하방 침식이 활발히 일어났고 이에 좁고 깊은 골짜기가 형성되었다.

시기	기후	침식기준면 해수면	해발고도	상류 하상	유량	유로	상류	하류
빙기	한랭 건조	하강	높아짐	상승	적음	깊	퇴적	침식
간빙기 (후빙기)	온난 습윤	상승	낮아짐	하강	많음	짧음	침식	퇴적



▶ 참고

- 신생대 제4기 화산 폭발과 지각 변동, 기후 변동 순환 등의 이유로 빙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 빙기에는 강수량이 줄고 강물이 빙결되어 바다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줄어 해수면이 하강(후퇴)하게 되었다. 이에 수심이 얕은 서·남해안이 육지로 드러나 중국과 일본을 육로로 오갈 수 있었다. 수심이 깊은 동해에서는 연안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빙기에도 계속 바다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는 빙기에도 육로로 오갈 수 없었다.
- 빙기의 하천 상류에서는 식생이 감소하게 되었고 토양의 동결과 융해가 심화되어서 풍화 산물의 공급(산사태)이 증가하였다. 빙기의 하천 하류에서는 유량이 감소하여 하방 침식이 활발히 일어났고 이에 좁고 깊은 골짜기가 형성되었다.

산맥 구분	해발고도	연속성	해당 산맥 & 지질구조선의 방향
1차 산맥	높음	높음	함경(라오동), 소백(중국), 낭림(한국), 마천령(한국), 태백(한국)
2차 산맥	낮음	낮음	라오동 방향, 중국 방향 산맥